

“한류원조 태권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

‘락앤락 창업’ 자수성가 신화의 아이콘 아시아발전재단 설립해 사회공헌 매진 태권도 동영상 공모전 12회 참여 흥행 태권도, 글로벌스포츠로 만드는데 최선을 “한글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 담는 그릇 한글 통해 우리문화 알리는 전사될 것”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태권도와 한글 보급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김준일 아시아발전재단 이사장.

김준일(69·코비그룹 회장)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은 ‘자수성가 기업인의 신화’로 불리는 인물이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가장 익숙한 이름은 아마도 ‘락앤락 창업자’일 것이다. 김 이사장은 1998년 4면 결착 밀폐용기 락앤락을 개발해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이 제품으로 미국과 한국의 홈쇼핑에서 대박을 내고 2004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락앤락은 세계 119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연매출 4000억 원을 자랑하던 락앤락을 김 이사장이 2017년 돌연 매각하면서 화제가 됐다. 락앤락의 미래와 제2의 도약을 위해 매각했다고 한다. 앞서 그는 2016년 247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아시아발전재단을 설립했다. ‘더 큰 함계’를 위한 밑그림이었다.

●아시아발전재단에 이어 올해 한문화재단 설립
“40여 년 간 사업을 하며 회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모두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 이사장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고 했다. 지난 시간이 ‘사업’에 매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열정을 쏟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베트남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공헌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공기 중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면서도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는 리얼벌브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한 코비플라텍 외 2개사에 투자를 했고, 베트남 비즈니스로는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공헌은 김 이사장의 최대 관심사

다. 아시아발전재단에 이어 올해 4월 한문화재단(KCF)을 세웠다. 한문화재단의 목적은 한글, 한국어를 포함해 K-팝, K-푸드 등 각광받는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다. 문화를 통한 세계인과의 교류는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국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며 국민의 자부심과 국격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기생충에서 마나리를 거쳐 최근의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영화, 드라마와 함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의 K-POP,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연예프로그램에서의 열기 등 바야흐로 한국문화의 전성기입니다. 한국문화 열기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 이사장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태권도와 한글이다.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입니다. 전 세계 205개국에서 1억5000만 명의 수련생이 피부색과 언어를 떠나 우리말로 ‘차렷’, ‘경례’의 구호를 외치잖아요. 국기

(國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스포츠입니다.” 김 이사장의 태권도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아시아발전재단의 주요 사업에 태권도 교류 협력사업이 포함될 것만 봐도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태권도 전문가가 아닌,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 태권도의 위상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멋지지만 실속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싶기 때문이다. 사실 태권도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스포츠이지만 정작 우수성과 목표를 제대로 모르거나 재미 없는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김 이사장의 바람은 태권도가 모든 국민이 즐기고 환호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스포츠가 되는 것이다. 그가 최근 아시아발전재단을 통해 태권도 관련 동영상 공모전을 가진 것도 태권도가 중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스포츠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는 이 행사를 위해 1억여 원을 지원했고 12월 3일 시상식을 갖는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WT),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대표적 태권도 단체 4곳이 공동주최,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모전에는 305편이 접수됐다.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중국, 프랑스 등 12개국에서도 33편이 출품됐다. 태권도는 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남녀 각 3체급)으로 채택됐고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선 남녀 각 5체급 등 10개 메달로 늘어난다. 김 이사장은 8월 도쿄 패럴림픽 때에는 탈레반 집권 이후 출전이 어려웠던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선수단의 딱한 사연을 보고 WT를 통해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글
태권도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긍지이자 한류의 뿌리라면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을 하나로 꿰는 것은 한글의 역할이다. “한글은 언어의 창제원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사랑은 찬란한 우리 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의 말씀처럼 한글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발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짜야짜야족을 위해 한국어와 태권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유의 말은 있으나 이를 표기할 문자는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글이다. 짜야짜야족이 사는 바우바우 섬의 고교는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몇 가지 구상했던 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사업과 재단 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재단을 선택할 겁니다. 남은 시간은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이사장의 말은 그로 하여금 성공신화를 쓰게 만들었던 제품만큼이나 굳건하고 단단하게 들렸다. 한국 자수성가 기업인의 신화가 인류를 위해, 더 넓고 더 넓은 세계관의 2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획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9



아시아발전재단(ADF) 김준일 이사장(오른쪽)과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가 11월 22일 서울 중구 WT 사무실에서 ‘태권도 교육 및 태권도 케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의 현재와 미래 “아시아는 더불어 가야 할 이웃”

장학사업·의료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활발
공익재단의 설립은 김준일 아시아발전재단 이사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부터 품었던 꿈이었다. 그는 “돈을 벌기도 전에 돈을 벌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이라며 웃었다. “2015년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지(延吉)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민족의 말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어로 돌아와 바로 연변대에 ‘락앤락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비영리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아시아발전재단이 탄생했다. 락앤락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김 이사장은 아시아가 갖고 있는 인류문명 원류로서의 의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이 거둔 성취와 경험을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발전하고 공동의 평화를 꿈꿀 수 있다면 이는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의지는 아시아발전재단의 비전인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재단이 하는 사업은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양성 사업 ▲의료 취약국의 소아 심장수술, 구순구개열 수술 지원과 국내외 다문화 배경 학생, 고려인 등 동포들을 위한 사업 등의 나눔지원 사업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하는 ‘태권도 케어 프로그램’과 같은 교류 협력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사업, 인도네시아 짜야짜야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교육 사업 등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탄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신 테이프 없이 장정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주입문의: 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리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 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

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소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중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탄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 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 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가능, 우선전화 핸즈온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고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음성증폭기, 작은 소리도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한 사람에 답답함 해소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된 후 소비자 식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종합물산 (주입문의 : 080-232-5866)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어폰 음성증폭기’가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때 답답했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 시 선명한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청용,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특정 음역대역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 쪽 귀에만 끼어서 들을 수 있고 양쪽귀에도 끼어서 들을 수 있다. 또 한 약2시간 정도의 충전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넓이가 1.5센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수백만원이 넘는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집을 등이 거의 적어 국내 생산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대화할 때 큰 불편을 느꼈던 김모(65)씨는 “일상 대화나 TV시청 넓은 강당 교회 등에서 설교 시 귀가 잘 안들려서 답답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답답함이 해소되었다”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사용방법은 블루투스를 한쪽 귀에 꽂아 사용한 방법과 스테레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이 제품 판매의 한 관계자는 “음성증폭기는 IT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디지털 전자제품이며 의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갑작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草)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숲 굽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엑기스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한 시간 후 정제과정을 거친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에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밤,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 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모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발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은 자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험생,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고봉석)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